

2/27
2022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자

[요 13:1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Google.com Nathan Shaw book cover

1부 중보기도 : 행정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 에스더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 중보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1. 할렐루야!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흠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복이 되는 시간이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기도없이 행하였던 불신앙과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리라는 결단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3.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사 아버지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받을 청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뵈옵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는 귀한 믿음의 체험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4.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5. 예배에 참석하신 새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시며 몸 된 재단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6. **나라들이 팬데믹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중보자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아비의 눈물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 앞드리게 하옵소서. 주일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권상욱목사, 2 & 3부: 김대규목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열어 기름부으시고 모든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 찬양할 때, 모든 묶임과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게 하옵시고 참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갖춰지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케니박목사, 김병진목사, 이정호목사)

- 사회 담당 목회자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3. 대표 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김영록장로, 신창수장로, 임명수장로)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올려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1. 한기홍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감과 영력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에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권능 있고 권세 있게 하옵소서.
2. 성령께서 들려 주시는 음성을 가감없이 담대함으로 전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으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용기를 얻음으로 주님과 의 첫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3. 말씀이 굳은 심령들을 부드럽게 만지사,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을 담아 주셔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며, 사랑과 헌신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5. 담임 목사님에게 천상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팬데믹 시대를 적절히 대응하며 깨어 있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주시고 제사장적 중보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6.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부흥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2022년도에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 주옵시고 영적인 대 추수가 은혜 제단에서부터 시작되어 열방을 깨우게 하옵소서. 아멘!

B.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매 시간마다 말씀의 능력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 예수그리스도의 닮아가게 하셔서 저희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 깨달은 말씀을 실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 사단의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한 첫 사랑과 열정이 온전히 회복되어 부흥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한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 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찌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찌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찌어다” [대상16:29]

- 1) 만물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이 되게 하옵소서.
- 2)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마무리를 위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 3) 성도들의 기업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가 소명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며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 4)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 5)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미국을 위한 기도

- A. 미국에 국제적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 중국의 대만 위협, 그리고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평화를 구하게 하옵소서.
- B. 학교에서 진행되는 잘못된 이념교육과 퇴폐적인 성교육들을 막아주옵소서, 이를 위해 부모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미래 지도자들이 준비되는 각급 학교에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옵소서.
- C. 코비드-19 과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하시고, 위축되어 있는 이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돌아오는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 D. 현재 낙태반대법 심의를 하고 있는 대법원 판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한국을 위한 기도 :

-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3월 1일은 3.1 운동이 일어난지 103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국 땅에 자유를 주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영적 대각성,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5년 독립과 1948년 기도로 시작한 제헌국회, 1950년 6.25 전쟁과 휴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한국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진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 2.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며,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 3.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갱신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1. **GTD196 기(남자)** - 3/27(주일)~30(수), 장소: 빅베어 Pinecrest 산장
Spiritual Leader: 한기흥 목사, 렉터 : 류형수 장로, 참가 대상자 : COVID-19 백신 접종자(선착순 60명 마감)

2. **AWANA(어린이 제자 양육) 봄학기 개강** - 3/11 - 6/10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2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저는 이번 주간 일천번제 새벽예배에 은혜 받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총회에서 장로고시 받는 분들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명예장로 받으시는 (오승준, 송인태, 고양섭, 손용현, 임완일) 안수집사님들과 주님의 영광교회, 갈릴리 은혜교회, 에브리데이 교회, 진리의 빛교회에서 총 28 명(부부포함)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4 주에 걸쳐서 교육받고 장로고시를 보고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화요일에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중에 80 세 생일을 맞이하신 6 분(홍성훈, 강영철, 유익경, 주경자, 최정진, 정소남) 선교사님들 이십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모임을 못해서 이미 지난 분들까지 함께 축하를 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팔순 감사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귀한 선교사님들은 우리 GMI 세계선교 사역에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해 지셨어도 지금도 선교사역을 위해 마음이 온통 선교지에 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오래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ㅎㅎ) 제가 김광신 원로목사님을 중심으로 선교사님들과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챙겨드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가족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저녁에는 목사 부흥의 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정교회 목사님들과 가정교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그룹장님들과 가정교회 목사님들 정말 귀한 동역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날마다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들이기에 그룹장님들과 가정교회 목사님들 위해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사업체 심방과 환우들 기도해 드리고 성도양육과정 부목자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하며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목요일에는 영상작업을 하며 집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바이블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일천번제 새벽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목사 드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4)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러시아 혁명사를 읽어보면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트로츠키라는 사람으로 그는 러시아 국내에서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내에서 소위 소비에트(평의회)를 최초로 결성하고 그 의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운 격동기에 국내 현장에서 혁명을 이끌어간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레닌으로서 그는 초기에 국내에서 혁명을 주도했지만 경찰의 압박을 피하여 보다 자유스럽게 혁명을 이끌기 위하여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하여 그 곳에서 혁명을 지휘한 사상가였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1917년 4월에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면서 재정 러시아가 붕괴되고 해외에 있던 많은 혁명가들이 속속 러시아로 귀국했습니다. 그 때 레닌도 제네바를 떠나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정국을 이끌고 있던 임시 정부가 1917년 10월 26일에 항복하고 그 당시 공산당은 비어 있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국외에서 혁명을 주도하던 레닌이 권좌에 앉은 반면 국내에서 직접 혁명을 주도했던 트로츠키는 결국 세력권에서 물러나서 알마아타로 유배되었다가 국외로 추방되고 결국 멕시코의 망명지에서 스탈린의 지령에 의하여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혁명을 주도했지만 레닌이 구 공산권의 영원한 영도자로 추앙 받은 반면, 트로츠키는 망명지에서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공산혁명이 성공했을 때 가졌던 두 사람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레닌이 마치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산을 올라가던 등산가가 한 봉우리에 올라간 다음, 다음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이었다면, 트로츠키는 마치 큰 수술을 마친 외과 의사가 가운을 벗어 놓고 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가도는 원래 봉우리와 봉우리를 이어 놓은 등산로와 같습니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고 안도하려는 사람은 결국 작은 봉우리도 차지하지 못한 채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성공자는 작은 성공을 한 다음 그것을 보다 큰 성공의 전초기지로 삼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큰 산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동안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렇듯 아름다운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겨우 초입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를 정복한데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2022년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산정에 이르기 위하여 또 한 번의 각오를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